

모두 발언

2025. 9. 16. (화) 15:00

여신금융협회(11F)

상기 자료는 보도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발언은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 융 감 독 원
원 장 이 찬 진

I 인사말

안녕하십니까?

금융감독원장 이찬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여전사 대표님들과 여신금융협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전업은 국민의 곁에서 경제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카드사는 국민 모두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지급결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으며,
캐피탈사와 신기술금융사는
기업의 자금조달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지급결제 시장이 급격히 변화하고
금융권에서 사이버 침해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여전업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변동하고 있습니다.

오늘 간담회에서는 이러한 도전적인 환경하에서
여전업권이 향후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해 보고자 합니다.

Ⅱ 여전사의 경영여건 및 특징

CEO 여러분,

최근의 영업환경은 녹록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내외 금융환경 불안으로 경기회복 지연이 우려되고
전국민이 이용하는 카드사는 내수부진에 따른
소비위축의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카드사와 캐피탈사의 순이익은 정체*되면서,
간편결제 확산, 스테이블 코인 등장 등
결제시장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응한 다각적인 성장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 카 드 사 : ('23) 2.58조원 → ('24) 2.59조원 → ('25.上) 1.23조원
비카드사 : ('23) 2.70조원 → ('24) 2.49조원 → ('25.上) 1.78조원

또한 수신기능이 없는 여전사는
자금조달을 주로 시장차입에 의존함에 따라
자금시장과의 높은 상호연계성을 가지고 있어
보다 철저한 리스크 관리도 필요합니다.

여전사가 소비자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이와 관련하여 몇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Ⅲ 여전업권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제언

먼저, 최고경영진이 장기적인 시각에서 금융소비자의 정보 보호를 직접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카드는 전국민의 보편적인 결제수단이며 소비자는 자신의 정보가 안전하게 지켜질 것이라는 기본적인 신뢰를 바탕으로 금융회사를 선택합니다.

튼튼한 은행이 아니면 예금을 맡기지 않듯, 정보보안이 취약한 금융회사는 어느 누구도 이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금융권의 사이버 침해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비용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한 결과는 아닌지 뒤돌아 보아야 합니다.

금융소비자 정보보호를 위한 지출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금융업체로서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지출이자 핵심 투자입니다.

카드업권의 경우 전국민의 정보를 다루는 점에서 정보보호에 깊은 경각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들께서 한 번의 사고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제로톨러런스(Zero-Tolerance) 원칙을 가지고,
직접 사이버 보안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재점검하는 등
정보보호의무를 철저히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보안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감독원도
이행여부에 미흡함이 없도록 촘촘히 관리·감독하고,
위반사례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둘째, 소비자 친화적 업무패러다임으로 전환하여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따뜻한 금융을 실천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여전업권은 코로나 상생지원금 지급 등
정부정책에 협조하며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국민과 함께하는 여전업권’으로 자리매김하도록
소비자의 관점에서 업무관행을 개선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소비자의 정보접근성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해킹침해사고 등 긴급상황에서
야간이나 주말은 물론, 주중 업무시간에도
전화 연결의 어려움, 복잡한 절차 등으로
카드 사용중지, 재발급 등이 어렵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소비자가 자기보호를 위한 방어권을 적시에 행사할 수 있도록
앱·홈페이지 개편, 야간·주말 통합 콜센터 확대 운영 등
소비자 접근 채널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외계층 금융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 연체 차주의 소액채권 등에 대해서는
소멸시효 연장을 자제하고,
고령층의 카드포인트 사용을 활성화하는 등
소비자를 배려하는 업무방식을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자체 채무조정 및
근로자 대상 햇살론을 확대하는 등
연체 차주의 재기 지원, 취약계층에 대한 자금 공급에도
보다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강화와 부실채권 정리 등
건전성 관리에도 관심을 가져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여전업권 성장 정체로 인한 영업경쟁 과정에서
중고차 대출사기 등 금융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있어,
내부통제 체계를 보다 내실있게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고경영진께서 법과 원칙을 철저히 준수하는
조직문화 조성에 앞장서 주시고,

내년부터 시행예정인 책무구조도를 통해
금융사고 예방기능이 충실히 작동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편으로는, 최근 상승하는 연체율* 등을 감안하여
여전사의 건전성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 카 드 사 : ('23말) 1.63% → ('24말) 1.65% → ('25.上) 1.76%

비카드사 : ('23말) 1.88% → ('24말) 2.10% → ('25.上) 2.43%

경기변동의 불확실성을 감안하여
부실 PF 사업장에 대한 관리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해주시고,
부실이 우려되는 자산에 대해서는 충분한 충당금을 적립하는 등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리스크 관리 과정에서
중·저신용자의 자금조달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한 혁신을 지속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경제가 처한
성장둔화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기술력 있는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양질의 자본 공급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여전사는 신기술금융업을 통해
모험자본 공급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 왔으나,
최근 몇 년간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 ('21) 8.3조원 → ('22) 5.7조원 → ('23) 5.5조원 → ('24) 5.3조원 → ('25.上) 3.0조원

기술 기반 성장단계(Scale-up) 기업에 대한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여전사에서도 모험자본 공급의 한 축을
담당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카드사의 방대한 소비데이터를 활용하여
데이터 기반 신사업을 추진하는 등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미래 성장동력을 발굴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금융감독당국도
신기술금융업에 대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혁신금융서비스와 겸영·부수업무를 폭 넓게 허용하는 등
여전사의 투자역량 제고와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각종 보고·신고 의무 중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부분을 간소화하는 등
여전사의 업무부담 완화에도 힘쓰겠습니다.

CEO 여러분!

국민이 여전사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잃는다면
현재 여전사의 기능은 대체될 수 있으며
업권의 존립이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몇가지 당부말씀은
금융회사 업무의 시작과 끝이 소비자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다름이 아닐 것입니다.

저희 금융감독원도 업권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불필요한 규제는 개선하며
필요한 제도적 지원은 아끼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